



# 보도자료

보도일시 | 2025년 12월 19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남구 고래문화재단

### 아이의 시선과 할매의 기억이 만나는 시간, ‘할매랑 얼라들’

- 2025년 새미골 문화마당 문화예술아카데미 결과보고전시 -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오는 12월 21일(일)부터 2026년 1월 11일(일)까지, 장생포 창작스튜디오 131갤러리에서 2025 새미골 문화예술아카데미 결과보고전 「할매랑 얼라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 명화 하브루타’와 ‘시니어 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한 해 동안 창작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세대가 어우러진 예술교육의 성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는 세대별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통해 탄생한 창작 결과물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어린이 명화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명화 감상과 질문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해석한 내용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감상과 토론을 결합한 하브루타 방식은 어린이들의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아이들이 각자의 관점으로 재창조한 회화 작품들이 전시에 함께 소개된다. 특별히 이번 전시는 작품뿐 아니라 아이들의 질문·생각 과정이 담긴 짧은 기록도 함께 구성되어 관람객들이 어린이의 시선과 상상력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지는 시니어 아트테라피 작품들은 평균나이 60대 시니어들이 그림을 통해 정서 안정과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시니어들이 매주 그림 그리기·색채 표현·소재 선택 등을 익히고 자신의 감정과 삶의 이야기를 시

각적으로 표현하며 완성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일상의 기억, 관계, 오랜 시간을 통해 쌓인 정서들이 그림으로 풀려 있어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고래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시니어가 함께 만든 세대 공감형 문화예술교육의 결과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세대를 잇고 공동체를 확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오픈식은 12월 21일(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2.

---